

노르웨이, 여행 안전정보
- 주요 사건사고 사례
12년 8/24 기준

여행자 안전 주의요망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서는 노르웨이, 특히 Oslo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유쾌한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노르웨이 기후 특성상 동절기에는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므로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 시간에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 요망함.
- Oslo는 종전과 달리 여행자들이 소지품등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임.
- Oslo 인구의 5분의 1 이상 인구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 등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며, 최근 들어 제3국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노르웨이로 들어와서 절도, 소매치기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근 유럽 국가중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의 출신 사람들이며, 이들은 여행 성수기 기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혼잡한 공항, 기차역, 호텔부근 버스정류장, 관광지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함.
- ※ 우리 한인들중에도 시내 관광 및 여행중 또는 식사중 소지품, 핸드백 등을 도난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외국인 임에도 길을 물어 보거나, 옷의 오염물을 털어주는 행위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시면서 여권이나 현금, 신용카드 등 귀중품이 이들이 노리는 목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주재국 당국으로서도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범행을 한 후 잠적하고,또한 발생 빈도가 점차 많아져서 한번 사건이 발생하면 이러한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치안상황]

노르웨이 현지 강력 범죄는 매우 낮으나, 아중동 및 동구 지역 이민자 등 제3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특히, 여름 관광시즌에 오슬로 등 대도시 중앙역, 호텔로비, 식당, 백화점 및 보행자 밀집지역 등에서 제3국인에 의한 소매치기가 성행하므로 소지품(특히, 여권 및 지갑)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소지품 분실 사고 주요 사례]

사례 1) 여행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공항으로 입국한 뒤, 상대방의 지갑을 탈취하여 현금과 사용 가능한 카드만을 챙겨 이미 예약 되어 있던 항공편으로 다시 나가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사건 당시의 복장을 벗고 다른 옷으로 심지어는 안경 등으로 분장을 하여, 사건 당시에 얼굴을 본 증인이 있다해도 다시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종류의 절도범들은 1~2명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노르웨이 방송에도 주의 방송이 나간 예가 있다.

사례 2) 일부는 공항에서 식당 또는 호텔로 여행객들을 따라 다니며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아침 식사시 분주한 틈을 노려 소지품을 훔쳐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어서 발견을 하더라도 잡지 못하는 수가 많다, 또한 양복차림을 한 절도범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는 평범한 호텔 투숙객으로 보일 수 있다.
(범죄자들은 옷맵시로 표시가 날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사례 3) 시내 여행지에서는 사람들을 혼동 시켜 빈틈을 노리고 소지품, 특히 지갑을 훔치는데,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묻거나, 돈의 단위를 묻거나 하며 자기도 여행객인양 사진을 찍어 달라하며 기회를 엿본다.

사례 4) 거리의 구걸인들에게 적선을 하려 지갑을 열면, 구걸인들은 이때 지갑안의 현찰과 카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다른 공범에게 신호를 보내고, 공범이 관광객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다. 여러번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증인 등에 의해 절도범이 잡히기도 했지만, 도망을 가면서 지갑을 이미 다른 공범에게 던진 후라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들은 큰 조직이기에 인원은 때에 따라 바뀌며, 각자 구역을 맡고 있는게 대부분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섞여 있다.
(주머니에 동전이 없다면 적선도 금지 사항)

사례 5) 유람선이나 기차 안, 식당 등에서 절도범들이 소지품을 훔치는 예가 많은데, 같은 여행객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소매치기범이나 절도범들은 현지인 보다는 외국인들이 많기에, 더욱 이들을 여행객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사례 6) 오슬로 중앙역(Oslo Sentral Stasjon)에서 장거리 기차를 기다리던 중, 같은 여행객인양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해진 뒤 화장실을 다녀와서 보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훔쳐감.

사례 7) 술에 취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도움을 주는 동안 지갑을 훔치는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범죄의 방법 역시도 여러 가지임.

[호텔 투숙시 유의 사항]

사례 1) 호텔들의 경우, 키로 문을 열 때뿐만 아니라, 문을 잠글 때도 키를 넣어야만 잠금이 되는 호텔들이 생기다보니 이에 따른 범죄가 생기고 있는데, 식사를 하러 갈 때 문잠그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노르웨이에는 카드로 호텔출입문을 열고 잠그는 형태의 호텔들이 많으므로, 호텔 체크인시 확인 요망)

사례 2) 호텔에서 식사 중, 일행 여러 명이 합석해서 서로의 소지품을 한 의자에 올려놓고 서로 봐 주었으나 한눈을 파는 사이 범인은 가방을 훔쳐 달아는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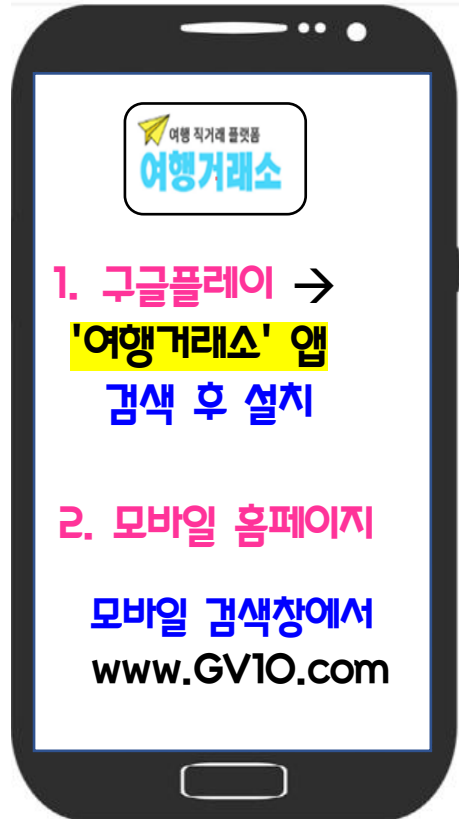
- 노르웨이에서는 매점, 주유소, 물건 구입 등 카드사용이 활발하다. 카드 사용시 주변 사람에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현금자동 인출기(Minibank)에서 현금을 찾을 때도 역시 주의하자!)
- 택시를 타야할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를 요하는데, 간혹 외국카드 사용시 이미 결제가 되어 영수증은 나왔어도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사실을 발견한다고 해도 사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국외여행객이면 가능하면 택시 이용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기타 참고 사항]

- 여권 분실시 처리 : 대사관에서 여행자 증명서 발급
 - 구비 서류 : 여권 분실신고서(관할경찰서 발행), 구여권사본이나 신분증, 사진 2매
- 긴급 연락처
 -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 +47) 22 54 70 90
 - Immediate Help / Emergency : 112
 - Oslo Police Department, Foreign Section : +47) 22 34 20 00 (24시간 대기)
 - 주소 : Storgata 33, Oslo

출처 : 주 노르웨이 한국 대사관 (120824)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